

수입자유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신진축산주식회사
회장 이 인 혁

수입개방!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

정부는 지난 연말에 발표한 86~88년 수입자유화계획에서 603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자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년 5~6개 품목의 농수산물을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으로 발표하였다.

이중 축산물부분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금년에 칠면조 고기, 기타 가금류의 고기 및 가금류의 식용부산물과 87년에는 돼지고기 통조림, 가금고기통조림, 동물의 방광, 소세지와 유사한 제조식품류가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예정된 개방일정보다는 1년 늦추었고 특히 쇠고기 통조림, 햄, 베이컨 등의 개방을 89년 이후로 미룬 것은 국내축산농가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90년대 초 쯤에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의 문을 거의 열어 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같이 개방해도 좋을만큼 국내양돈업의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일까?

아직도 외제 선호 사상이 뿌리박혀 쇠뺌나 꼬리까지도 수입하는 실정을 볼 때 암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지난날 돼지는 뜰물이나 구정물로 키우던 시대에서 수입육수수를 원료로한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양돈으로 탈바꿈하면서 사양기술이나 경영능력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육 규모면에서 보면 부업형태에서 전업, 또는 기업화 과정을 걷고 있기는 하나 호당 사육두수 10두 내외로 일본의 130두, 대만의 80여두에 비하면 아직 영세하여 국제 경쟁력 면에서 선진 양돈국가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료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생산성, 품질, 가격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양돈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돼지가 과잉 생산되어 괴로와할 때도 있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몇 십만두씩 죽은 적도 있었다.

이렇듯 기술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수입개방일정을 대하고 보니 대응준비를 할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초조해진다.

일본은 1인당 사육두수 15두를 넘어섰던 1971년에 돈육수입 자유화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 비교하면 너무 이른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양돈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입개방이 불가피하

더라도 실질적이고도 탄력적인 대응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수입자유화상품에 대하여 조정관세나 긴급관세, 그리고 수입감시제도의 적절한 활용 및 보완조치로 거세게 밀려오는 자유화 물결에서 우리 축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외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갈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별공고에 반영시킬때 대상품목을 하나하나 재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상품목이 국내시장규모나 양돈업계 수준으로 보아, 오는 90년대 초까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안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 및 새로운 수요개발을 통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부업농가와 전·기업농가의 역할이 분담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양돈업 발전을 위하여는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을 부업농가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기업농은 사료효율의 향상, 품종의 개량, 돈사의 합리적 모형개발, 질병대책 등의 기술개발을 하여 부업, 전업농에 보급하여 양돈업 전체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종돈을 잘 활용하고 또 체계적인 육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돈을 생산하여 매년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하는데 지출되는 상당량의 외화를 대체하고, 양돈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종돈에 대하여도 경쟁력있는 국산 하이브리드 생산체계를 갖추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악성질병의 만연에 대비한 근본적인 위생대책의 방법인 SPF 사양방식이라든가 유전자공학등에 투자를 하여 양돈업을 선진국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반면, 부업농은 이들 우수한 종돈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된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로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산업이든 수요는 생산을 창출해 낸다고 한다. 이 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돈육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양돈업으로서 자구책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쇠고기, 닭고기 및 기타 육류와 대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거나 최소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인 차원에서 조금 뒤지는 제품일지라도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진다면 아무리 수입자유화가 물밀듯 밀려온다 하여도 그들이 시장을 잠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수입자유화는 경제발전때 따른 필연적인 사항이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개방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혼신의 노력으로 수입자유화에 정면도전하려는 비장한 각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업자, 소비자의 뫼친 힘만이 수입과고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입자유화 상품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나 긴급관세, 그리고 수입감시제도의 적절한 활용 및 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